

# 결혼하려 미국 갔다가 지옥을 맛본 애드먼톤 여성

지난 해 애드먼톤에서 미국으로 가서 결혼한 보헤미아는 남자로부터 받은 끔찍한 가정 폭력을 피해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캐나다로 되돌아 오는 수속을 받고 있다.

약물같은 신혼기간을 보낸 전 자동차 경주자인 보헤미아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캐나다로 들어오는 것 자체도 쉽지않았다. 부녀자 보호 셸터에서 캐나다행을 기다리고 있어도 남편이 감옥으로 다시 가기 전에는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C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49세의 보헤미아는 "대들고 저항하면 맞아죽을 확률이 10배나 높았다"고 말했다.

노스 캐롤라이나 주 경찰에 따르면 보헤미아는 가정 폭력의 희생자로 남편이 그녀를 찾아 가해를 더 입히지 못하도록 안전한 곳에 격리시켜주었다. 보헤미아는 다른 여성들이 학대를 당할 경우 도움을 청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보헤미아는 웹사이트 writeaprisoner.com에서 31세의 존 폴 개디의 프로필을 본 후 연락하기 시작했다. 당시 Gaddy는 2010년 쇠지렛대로 사람을 죽인 후 피해자의 집을 방화까지 한 혐의로 9년간 복역중이었다.

보헤미아는 개디와 팬팔 관계를 맺고 1년 이상 서신을 교환하며 그에 대해 관심을 갖게되었다. 개디가 재판을 목표로 한 모든 교도소 과정에 대해 말했다 그녀는 개디가 더 이상 누군가를 살인한 화난 젊은이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진심으로 사람은 변할 수도 있다고 믿은 그녀는 낭만적인 새로운 모험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었다고 회회하고 있다.

"그남자는 저에게 새 세상을 약속했습니다."라고 비즈니스 경영 및 회계 분야의 대학 학위를 가진 보헤미아는 말했다. "그는 나를 돌봐 줄 것입니다. 그는 나를 사랑했습니다. 나는 또 그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믿었습니다."

지난 9월, 이미 장성한 다섯 자녀를 가진 어머니는 애드먼톤에서 자갈 트럭 운전직을 그만두고 6개월의 방문객 비자로 미국으로 향했다. 개디가 2019년 9월 2일 노스 캐롤라이나주 스프루스 파인에 있는 에이버리 미첼 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풀

려났을 때 보헤미아는 그를 픽업했다.

그 때 그녀는 그가 새사람이 되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한달 뒤 10월, 끔찍한 폭력이 있었다. 심하게 두드러 맞은 뒤 목 통증, 시력 저하, 청력이 상 그리고 머리가 너무 아파 병원으로 가야했다.

병원에서 그녀는 의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CBC 뉴스에 제공된 의료 기록을 보면 의사는 보헤미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의사는 보헤미아가 어떤 여자가 자신의 목을 졸라 이를 피하자 머리를 때리고 머리를 벽에 박았다 고 말했다고 기록했다. 그녀는 진통제를 받았고 가정 폭력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

2주 후인 2019년 11월 2일 차에있는 동안 개디로부터 머리를 심하게 구타당하면서 의식을 잃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우리는 무언가에 대해 의견이 맞지 않았는데 그가 마구 주먹질했고 그가 나를 죽일 것이란 공포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녀는 피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개디는 주유소로 가기위해 계속 운전했다. 보헤미아는 차에서 나오면서 자신의 모습을 찍었다. 개디는 누군가가 피투성이의 그녀를 발견하고 911에 전화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둘러 운전석으로 돌아 왔다. 개디는 집으로 바로 가려했으나 그녀는 병원에 가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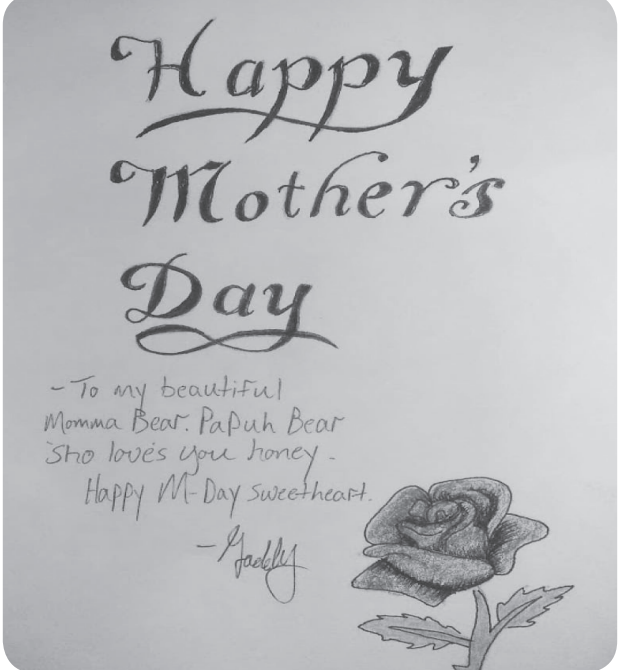
보헤미아는 이렇게 회상했다. "그는 병원으로 데려 갈 수 없고 집으로 데려 가서 피를 딱고 응급처치를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수상한 점을 느꼈는지 그녀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왔다. 개디가 근처에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나는 무서웠다"고 말했다. "주유소에서 차밖으로 뛰어 내리는 과정에 다쳤다고만 이야기 했다. 그 사람의 구타에 관해 이야기 하지 않았다."

보헤미아는 개디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결국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경찰에게 알무버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보헤미아는 911에 전화하겠다고 제안한 후, 비밀리에 녹음을 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나중에 CBC에 녹음을 제공했다.



테이프에서 개디는 소리를 지른다. "너 죽이고 나도 자살한다. 911에 전화하지 말라." 이거 알려지면 우리가 ABC 방송타게 돼!"

도저히 벗어날 수없는 인질이었다. 끔찍한 학대는 계속되었다. 보헤미아는 가방을 싸서 여러 번 도망치려 했다. 가방을 바닥에 열어 놓고 전화를 브래지어에 넣어서 자신의 주장을 비밀리에 다시 녹음했다.

보헤미아가 그에게 비명을 질렀을 때, 개디는 분명히 흥분했다. 곧 그녀가 구타 당하며 고향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그에게 멈추라고 간청했다.

개디는 이후 10분 이상 울부짖는 그녀를 진정 시키려고 노력했다.

"내가 진짜 당신을 다치게 하지 않았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해서 안된다고 항상 생각해. 나는 바보가 아니야."

그는 사과하고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 하고 그녀가 대답했다.

가정 폭력 전문가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완전히 도망하기 전에 파트너를 7~20회 때릴 수 있다고 한다. 켈거리에 기반을 둔 여성 보호소 디스커버리 하우스의 에스터 엘더는 "각 여성마다 똑같지는 않으며 상황이 매우 다르다"고 말했다.

보헤미아의 가방은 개디와 비밀리에 논쟁을 녹음하면서 포장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케이 보헤미아)

"폭력의 주기는 종종 가해자가 매우 매력적이고 돌보는 허니문 기간으로 시작되며, 그 후에 피해자의 행동 능력을 제한하는 강제적인 통제력이 강화됩니다."

보헤미아는 인질처럼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혼했습니다. (Kay Bohemier 제공)

보헤미아는 캐나다 여성 보호소와 의사 소통을 시작했다. 그녀는 최종 탈출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했다.

5월 15일 금요일, 개디가 샤워를 하는 동안 그녀는 차 열쇠를 잡고 마지막으로 도망쳤다.

머칠 후, 그녀는 11월 폭행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에 갔다.

6일 간의 조사 끝에 개디는 현충일에 가정 폭행으로 붙잡혔다. 그는 구류되었으나 수감 지침에 따르면 36시간 이상 구금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월요일은 휴일이었고 경찰은 개디를 석방해야했다. 그들은 판사를 만나지 않고 그를 48시간 동안 구속할 수 없었다.

경찰은 보헤미아가 피신할 안전한 곳을 찾아주었다. 판사는 이후 그를 1주간 구속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개디는 2010년 살인 유죄 판결로부터 보호 관리를 받지 않고 전자 모니터만 착용한다. 보헤미아는 지금 당면한 새로운 혐의로 그가 왜 구류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보호 전문가들은 보헤미

아의 처지가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방식을 느낄 권리가있다"고 말했다. "여자가 처음 떠날 때, 그녀는 살인의 가장 큰 위험에 처해있다."

캐나다에서는 한 여성이 현재 또는 이전의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6일마다 사망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행되는 동안 가정 폭력의 심각성과 빈도가 모두 증가했다고 말했다.

보헤미아는 캐나다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돈도 없고 수입도 없다. 캐나다 친구가 그녀를 대신하여 GoFundMe 캠페인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사태로 국경을 건너지는 것이 더 복잡 할 것이다. 보헤미아는 "캐나다 대사관에 연락을 해줄 수 있는지 문의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도착할 때 경찰 보고서, 의료 기록 및 모든 것을 다 갖추어야 합니다."

남편 Gaddy가 그녀를 찾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면서 2주 격리 계획을 제공해야했다.

"피해자인 내 이야기를 들려줘서 기쁩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Bohemier가 말했다.

## 코리아 알버타 저널 KOREA ALBERTA JOURNAL

### 알버타저널 발행인 안길웅

# \* 매주 금요일 발행

연락처 : 전화 (403) 616-7755

Email: 회사대표 abjournal.ca@gmail.com

또는 albertajournal@gmail.com

www.abjournal.ca

**고추의 맛을 같다**

김치가 맛있으면 밥맛이 살맛난다. 맛난 김치와 정갈한 반찬, 반조리식품이 준비돼 있습니다.

열무김치 3.6kg	부추김치	우영조림	부대찌개
배추김치 3.6kg	오이스박이	연근조림	감자탕
백김치 3.6kg	깍두기	마늘쫀무침	오삼불고기
총각김치 3.6kg	겉저리	무우말랭이	LA 갈비
나박김치 3.6kg	고추피클	쇠장조림	돼지갈비
동치미 3.6kg	갯잎절임	계란장조림	소불고기
맞춤김치 3.6kg	고추절임	오이지무침	떡볶이
파김치	호두멸치	김치해물전	

가죽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찾는 김치! 직접 담그기엔 엄두가 나지 않고 마트에서 사먹긴 부담스러우시나요? Red House에서 주문하세요. 진짜 엄마 손맛으로 집에서 정성스레 담그어 판매합니다.

모든 음식은 맛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전화주세요.

**Red House | 403.402.2774**

# Math Tutor - Alex

## 수학 · 물리 · 화학 개인 레슨

Math (10-20-30), Physics (20-30), Chemistry (20-30)

- 대상: 고등학생/영재학교 (GATE) 학생 환영
- 수업방법: Zoom을 통한 온라인 레슨
- 교사 경력:
  - PhD in Electrical Engineering, U of C
  - 고등학교 수학 · 물리교사 교직원 자격증
  - 고등학생, 대학생 개인레슨 다년경험

전화: (영어) 403-282-9220 (한국어) 403-264-4426

이메일: bageorge@topnotchcanada.ca